

‘왕벚나무’ 제주특산식물로 인정받을까

산림청·국립수목원, 3년동안 기원·자생 연구 학계 “제주 왕벚나무 원산지론 재배기록 있어”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이 왕벚나무(Prunus x yedoensis)의 기원과 우리나라 특산식물임을 밝히는 연구를 추진한다. 왕벚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국내 가로수 등으로 널리 식재되고 있는 왕벚나무의 기원과 자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의 과제명은 ‘왕벚나무(Prunus x yedoensis)의 분류학적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및 인문·역사학적 연구’다.

앞서 국립수목원은 2014년부터 한반도 특산식물의 중분화와 기원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연구를 통해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제주왕벚나무(Prunus x nudiflora)에 대한 전체 유전체를 완전 해독하고, 2018년 국제학술지

에 게재해 제주왕벚나무가 한국 특산식물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다. 국립수목원이 2020년 펴낸 국가표준식물목록(자생식물편)에 ‘왕벚나무’를 빼고 ‘제주왕벚나무’라는 이름을 넣고 ‘왕벚나무’는 재배식물목록으로 옮긴 때문이다.

이에 도내 관련 학계에서는 국가기관이 왕벚나무를 제주왕벚나무로 개명한 것은 왕벚나무가 자생식물임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지난해부터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마련해 의견을 모았고 한국산림과학회와 한국식물분류학회 등은 가로수 등으로 널리 심는 왕벚나무의 우리나라 기원 여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연구는 왕벚나무 전문가와 산림·식물분류·유전체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연구자문단을 구성해 연구의 객관성과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연구자문단은 왕벚나무 연구방향, 연구계획 및 연구사업의 중간평가, 최종연구결과 심의 등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 4월 2일 세계 자폐인의 날 ‘블루라이트’ 캠페인 내달 1~7일 제주시청 건물 파란빛으로...

제주시 도심에 자리 잡은 제주시청 사외벽이 파란빛으로 물든다. 유엔에서 지정한 제16회 세계 자폐인의 날(4월 2일)을 맞아 4월 1~7일 저녁마다 블루라이트 캠페인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블루라이트 캠페인은 전 세계 명소의 건물 외벽에 자폐성 장애인들이 가장 편함을 느낀다는 파란빛을 밝힘으로써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제주시도 이 같은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해 내달 1일부터 1주일 동안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시청 본관 벽면, 발빛누리공원에 각각 파란색 LED 조명을 비추며 세계 자폐인의 날 지정의 의미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노형동에 들어선 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서도 제주시와 협조해 세계 자폐인의 날 당일인 4월 2일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진선희기자

제주 AB형 혈액 겨우 3일치 남았다 혈액 수급 ‘비상’... 혈액원 “헌혈 동참해 달라”

제주지역 혈액 보유량이 줄어들어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이하 제주혈액원)은 헌혈에 따라 지난해 23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혈액재고량은 5.8일 분만 남았다고 밝혔다.

적정 혈액보유량 기준인 5일 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도서지역 특성상 제주는 7일분 이상 보유해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AB형의 경우 제주지역 보

유량이 3일분 이하로 떨어져 비상 상황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혈액원은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10일간 헌혈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혈액원 관계자는 “도내 혈액보유량 안정화를 위해 헌혈에 동참해달라”며 “우리 주변의 환자를 돕기 위해 많은 헌혈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불법체류 中여성 고용 성매매 주점 적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모 유흥주점 업주 A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미등록 중국인 여성 5명

을 유흥주점 점객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A씨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한편 A씨 유흥주점에 불법 고용된 중국인 여성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돼 강제 출국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차량 단독사고로 60대 숨져

제주시 산북북로에서 승용차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해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34분쯤 제주

시 아라1동 산북북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왕벚꽃축제 열린 전농로 상춘객 '복적'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왕벚꽃 축제가 열린 26일 제주시 전농로에 왕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성민기자

주말 최고기온 20℃ 육박 맑은날씨 속 잠시 봄비도

3월 마지막 주 제주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7일부터 30일 오전까지 맑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 30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31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28일까지 아침기온은 다소 낮아 쌀쌀할 것으로 보여 겉옷 등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7~8℃, 낮 최고기온은 12~16℃로 예상되며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5~8℃, 낮 최고기온은 16~17℃로 예보됐다.

28일까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낮 기온은 29일부터 차츰 올라 31일에는 2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흐린 날씨를 보이다 일요일부터 다시 맑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날씨는 27일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9~14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3.0m로 예상된다. 김도영기자

신호대기 차 들이박고 버스 추돌하고

경찰,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운전자 잇따라 입건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해안동 해안마을입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

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승합차, 승용차 등 3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도로 맞은 편 가게 벽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앞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도 계속

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돌았다.

또 같은날 오후 8시23분쯤 제주시 S중앙병원 인근에서는 30대 B씨가 몰던 SUV가 시내버스를 뒤에서 들이박았다.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상민기자

서귀포새마을금고 본점 예정 조감도

언제나 변함없는 아내의 사랑처럼
서귀포새마을금고가
늘 곁에 있겠습니다.

2022년
서귀포새마을금고가
이루어냈습니다!

서귀포새마을금고
제16대 윤재순 이사장 취임

1. 2022년도 결산 결과
-자산 3,236억 원, 당기순이익 18억 원
서귀포 자산 1위, 제주도 내 자산 2위
출자 배당률 6.1%

2. 동흥동 524~39번지 외 5필지
2,686㎡(약 813평)
(본점 신축 예정지 확보)

이사장 윤재순

이 사 김창호 홍성록 천명자 김화성 김희방
오창진 박복현 공 석 송명섭
감 사 성기영 오용환
오름산악회회장 김광오 골프동호회 회장 오창진
부 터 회 회장 김순민 파크골프동호회 회장 조승웅

신용사업팀장 김영미

수신부

과장 고우정
주임 오수진
주임 오영경
주임 강홍식

여신부

과장 윤희제
주임 정윤재
주임 김군민

내부통제팀
팀장 송창돈

전무강형진

총무팀
팀장 변찬익

과장 김정은
주임 김희진

회수지점
지점장 현윤창

부장 김경미
차장 김학민
주임 윤준혁

광장지점
지점장 김영숙

여성팀 강용철
과 장 조수희
주 임 김민현
주 임 이호석

MG 서귀포새마을금고

본 점 T.733-2250~54 F. 733-2252/2230
회수지점 T.738-5639~40 F. 738-5638

광장지점 T.732-9181~83 F. 732-9185
동흥지점 T.767-9495~97 F. 767-9498(예정)